

등록번호	행자위-3121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의 장	결 재
등록일자	2018 11. 7	정승원	김동환	신현성	장병희	안성호	이공중	유병국	
결재일자	2018 11. 7								
공개구분	공 개								
		협조 이계근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I. 연수개요 .....	3
II. 방문국가 및 도시현황 .....	8
① 미국 .....	8
② 캘리포니아 주 .....	10
③ 샌프란시스코 .....	12
④ 로스앤젤레스 .....	14
III.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	16
① 페이스북 본사 .....	16
②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	26
③ 머레이 팜 농장 .....	32
④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	40
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	50
⑥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 .....	55
⑦ 글렌데일시 소녀상 .....	65
⑧ 그밖에 참고 정보 .....	70
IV.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정책제언 .....	72
V. 총평 및 향후계획 .....	77
① 총 평 .....	77
② 향후계획 및 보완사항 .....	81
VI. 연수후기 .....	82

#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I 연수 개요

### 1 연수 목적

- 선진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 평생교육 시스템, 세금 징수 및 관리 실태, 첨단산업(페이스북 및 실리콘밸리)현장 방문과 친환경 농장의 운영실태 및 광산촌을 활용한 도시 재생사례, -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도정접목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등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방문기간 및 국가

- 기 간 : 2018. 10. 12(금) ~ 10.20(토), 7박9일
- 연수국가 및 도시 : 미서부(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등)
- 연수단 : 13명(의원 8, 전문위원실3, 도 집행부2)

### 3 주요 연수내용

-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 실태 비교 시찰
- 미국의 평생교육원 운영실태 및 수업현장 견학
- 미국의 조세형평국 운영시스템 비교와 벤치마킹
- 세계최대의 SNS 기업 견학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방식 및 조직운영 실태 견학

#### ④ 주요 공식방문 기관 및 역할 분담

분야별	담당	착안사항	비고
총괄	이공휘	연수총괄	위원장
페이스북 및 친환경 농장 운영실태	이공휘 안장현 오인환 이선영	<b>페이스북 및 머레이팜 농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의 SNS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의 운영실태 등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li> <li>■ 친환경 재배농장 생산 및 판매시스템 현지 실태조사 및 정보수집 등</li> </ul>	의원
충청향우회 협력 및 평생교육원 운영실태	홍재표 조길연 안장현 오인환	<b>충청향우회 및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와 샌프란시스코 충청향우회와의 협력방안 강구</li> <li>■ 선진 평생교육 시스템 현지실태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마련</li> </ul>	〃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조세형평국 세금징수 운영실태	이영우 한영신 이공휘 홍재표	<b>LA시의회 및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지방의회 운영 시스템 현지실태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마련</li> <li>■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의 세금 부과 및 징수시스템 실태조사 및 벤치마킹</li> </ul>	〃
전문위원실 집행부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출장계획 및 결과 정리</li> <li>■ 공식방문기관 섭외 및 견학자료 준비</li> <li>■ 현장활동 지원 및 사진 관리 등</li> </ul>	직원

## 5 연수 주요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찰 일 정	비고
제1일 10.12 (금)	인 천	KE 023 16:00	○ 인천공항 출발(약 11시간 소요)	
	샌프란시스코	10:40	○ 샌프란시스코 도착	
	샌프란시스코	14:00 (전용차량)	○ 공식방문 : 페이스북 방문 - 페이스북의 비즈모델 및 수익창출 현황파악 - 페이스북의 아이디어 발굴 및 채택방법 ➡ 수도권이나 주 중심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방문을 통한 충남도가 혁신기업 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 담당자 : sora elcan(페이스북 마케팅부)	
제2일 10.13 (토)	샌프란시스코	10:00 (전용차량)	○ 현장탐방 : 프레시디오 - 과거 공군비행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	휴일
		13:00 (전용차량)	○ 공식방문 : 충청향우회와의 간담회 - 충남도정 홍보 및 지역특산물 수출모색 ➡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날을 이용한 충남도의 농산물마케팅 가능성 모색	휴일
		15:00 (전용차량)	○ 현장탐방 및 문화탐방 - 알카트레즈 관광자원화 사례 견학,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탐방을 통한 대규모 토목건축물의 관광자원화 사례 견학	휴일
제3일 10.14 (일)	샌프란시스코	13:00 (전용차량)	○ 세계자연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조사 - 세계자연유산인 요새미티 국립공원 탐방	휴일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찰 일 정	비고
제4일 10.15 (월)	베이커스필드	11:00 (전용차량)	<p>○ 공식방문 : 머레이 패밀리 팜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재배 농장 생산 및 판매 시스템 실태 조사</li> <li>-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현황 조사</li> </ul> <p>➔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첨단 수로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시스템과 다양한 종의 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벤치마킹</p> <hr/> <p>• 담당자 : steven murray(머레이농장 홍보담당자) • 연락처 : +1(661)330-0100</p>	
	바스토우	15:00 (전용차량)	<p>○ 현장탐방 : 켈리코 은광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된 광산촌을 서부의 민속촌으로 재개발</li> </ul>	
제5일 10.16 (화)	코코니노와 모하비카운티	11:00 (전용차량)	<p>○ 세계자연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사례화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자연유산인 그랜드캐년 탐방</li> </ul>	
제6일 10.17 (수)	로스앤젤레스	14:00 (전용차량)	<p>○ 공식방문 :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세금 관리 시스템 실태조사</li> <li>- 탈세자, 고액채납자 관리 실태 파악 등</li> </ul> <p>➔ 선진 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충남도 세정 업무 개선방안에 접목</p> <hr/> <p>• 담당자 : Jerome E. Horton(Board Member, Third District) • 연락처 : +1(949)440-3473</p>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찰 일정	비고
제7일 10.18 (목)	로스앤젤레스	10:00 (전용차량)	<p>○ 공식방문 : LA시의회(시청)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와 집행부간 관계</li> <li>- 의회의 주요기능(입법, 예산심사, 감사 등) 파악</li> <li>- 의원 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태 파악 등</li> </ul> <p>➔ LA시의회의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도의회 및 의원별 역량강화 접목 모색</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 Jamie Hwang(Deputy)</li> <li>• 전화번호 : +1(213)473-7010</li> </ul>	
		13:00 (전용차량)	<p>○ 공식방문 :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원 조직, 기능 청취</li> <li>-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조사</li> <li>- 경력개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실태조사</li> </ul> <p>➔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운영 제안 등</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 Margie Abab(Director)</li> <li>• 전화번호 : +1(714)484-7041</li> </ul>	
		16:00 (전용차량)	<p>○ 현장탐방 :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최초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방문</li> </ul>	
제8일 10.19 (금)	로스앤젤레스	KE 018 12:30	○ 로스앤젤레스 출발	
제9일 10.20 (토)	인천	17:50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휴일

## II 방문국가 및 도시현황

### 미 국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미주대륙 북부(서경 66° 57' ~124° 44' /북위 25° 7' ~49° 23' )
면적	937만 2,610 km <sup>2</sup> (세계 3위, 농지 47%, 산지 29%/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북위 40° 선을중심으로한 온대(溫帶)에위치, 전반적으로따뜻하지만남북의위도차가 24° 나되는대륙인 만큼 기후 차이가심함.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기후 조건이 다양함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억 2,819만 5,137명(2018년 7월 23일 기준 추정치) (U.S. Census Bureau, <a href="http://www.census.gov/popclock">www.census.gov/popclock</a> )
주요 도시	뉴욕(862만), 로스앤젤레스(400만), 시카고(272만), 휴스턴(231만), 피닉스(163), 필라델피아(158만), 샌안토니오(151만), 샌디에이고(142만), 달라스(134만), 산호세(104만), 오스틴(95만), 잭슨빌(89만), 샌프란시스코(88만), 콜럼버스(88만), 포트워스(87만)(U.S. Census Bureau, 2018년 7월 기준 최신자료)
민족	백인(76.6), 흑인(13.4%),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8%),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이상 인종(2.7%)(주: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돼 집계됐는데, 히스패닉인구만 별도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1%)(U.S. Census Bureau, 2018년 7월 기준 최신자료)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기타(1.5%)무교(22.8%)

건국(독립)일	1776년 7월 4일(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실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의회	상·하 양원제 -상원: 100석(임기 6년) / 하원: 435석(임기 2년)
주요 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 민주당(Democratic Party)
국가표어	우리는 神을 믿는다(In God We Trust)

자료원: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World Trade Atlas

## ■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의 면적은 알래스카와 텍사스주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크고 대한민국 남과 북을 합친 것 보다 넓다. 대륙횡단 철도가 생긴 1870년 이후, 자동차 교통이 발달된 1920년에는 전국 최대의 인구를 가진 주가 되었다. 특히 1930년에는 존 스타인 벡의 분노의 포도에 묘사된 것처럼 오클라호마에서 모래 폭풍에 쫓긴 농민들이 공장이나 농장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 또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풍부한 천연자원, 지형, 기후 등이 농업, 공업, 1,200마일에 이르는 해안선, 좋은 항구등과 잘 결부되어 오늘날 ‘The Empire State of the West’ 라 불릴 만큼 성공을 거둔 주이다. 눈에 덮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 비옥한 계곡 지대, 모하비 족(콜로라도 강 연안에 살고 있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콜로라도의 양 사막, 샌프란시스코 등이 유명하고 땅 속에 매장돼있는 금, 은, 철, 석유 등 많은 자원이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물이 부족했으나 관개에 의해서 극복하였고 감귤류, 채소재배, 주류의 양조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는 주이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나 3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1850년 9월 미연방에 편입되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황금의 주, 캘리포니아의 멋진 경치와 이곳에서의 즐거움에 반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고 있다. 많은 산과 끝없는 사막,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황금 해변 등 캘리포니아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또한 이곳은 많은 배우들이 부와 인기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세계 영화 산업의 메카, 할리우

드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 캘리포니아의 주요 관광지는 로스앤젤리스, 샌프란시스코, 산디에고, 그리고 울창한 리조트가 있는 산타바바라와 팜 스프링스이다.

※ 충청남도와의 관계 : 우호협력 관계(1997. 3. 20. 우호협력 체결)

## ■ 샌프란시스코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
경위도	서경 122°25'9.12", 북위 37°46'45.48"
면적(km <sup>2</sup> )	601
시간대	UTC-8, Summer: UTC-7
행정관청 소재지	1 Dr. Carlton B. GoodlettPlace, inSanFrancisco
홈페이지	www.sfgov.org
인구(명)	837,442(2013년)

태평양 연안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만에 면한 천연의 양항(良港)으로, 골든게이트에서 남쪽 서안(西岸)에 위치한다. 시가는 반도의 북쪽 끝을 차지하며, 북쪽은 골든게이트 브리지에 의해서 대안(對岸)의 마린 반도에 이어지며, 동쪽은 샌프란시스코만을 넘어 오클랜드와 마주 보고 있다.

이 사이에는 길이 13.5km에 이르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브리가 걸쳐 있다. 신흥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를 앞지를 때까지는 오랫동안 태평양 연안 제1의 항구이었으며, 지금도 세계 유수의 항만 도시 및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848년 부근의 시에라네바다 산지에서 금광맥이 발견되어, 이른바 골드러시 시대를 맞으면서부터이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풍부한 농업지대와 새 공업입지의 가능성에 착안하여, 동부와 중부의 사람들이 대거 서부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발전하게 된 원인의 하나였다.

1936~1937년에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브리와 골든게이트 브리가 완성되어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원활해졌으며, 현재는

대도시권의 심장부를 이루며, 서부 지역의 경제·상공업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샌프란시스코항(港)은 국내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과 동양에 대한 바다의 문호로 개방되어, 인근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광석·식품, 각종 기계류를 주로 출하한다.

공로와 육로의 발달도 현저하며, 특히 최근에 개발된 BART(컴퓨터를 도입한 대량 고속철도)가 주목된다. 공업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80km의 방사상 범위 내에 90개 이상의 공업단지가 점재하여 활기를 띠고 있으나 중공업보다 식품·식육가공·제당·금속·인쇄출판·제재·고무·섬유 등의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 ■ 로스앤젤레스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경위도	서경 118°15', 북위 34°03'
면적(km <sup>2</sup> )	1,290.6
시간대	UTC-8, Summer: UTC-7
행정관청 소재지	200 N. Spring Street, Rm 410, Los Angeles, CA 90012
홈페이지	www.lacity.org
인구(명)	3,792,621(2010년)

뉴욕에 다음가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이며 주변의 패서디나, 컬버시티, 잉글우드, 산타모니카, 롱비치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700만을 넘어서 뉴욕 지역에 이어 미국 제2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시가지는 북부의 산 가브리엘 산맥의 남쪽 사면에서 서부와 남부 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다. 가로(街路)는 대개 정연한 바둑판 모양을 이루나, 시가지의 급속한 확장에 따르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오래된 시가지는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농업의 발전을 발판으로 착실한 도시발전이 시작되었다. 1891년의 석유분출을 계기로 20세기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유전개발, 1914년의 파나마운하의 개통과 산 페드로 만(灣)의 축항에 따른 해운의 발달,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의 발전, 교통로 확충에 따른 관광·휴양객의 증가, 감귤류의 재배와 관련 가공업의 발달, 기계·화학·항공기·자동차 산업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캘리포니아는 전지역에 걸쳐 일반적으로 농업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왔고, 따라서 각종 곡물·축산물·채소류 및 오렌지·레몬을 중심으로 한 감귤류의 시장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공업화의 추세로 농업의 쇠퇴가 현저하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공업원료 획득이 쉽고 1936년 완공된 후버댐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태평양의 현관 구실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중국·일본·필리핀 등 동양계 이민자들이 많고, 과거 에스파냐·멕시코령이었기 때문에 멕시코인·흑인의 인구 비율도 높아 인종문제에 기인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대책의 하나로, 시가지 재개발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며 ‘우정의 종(鐘)’을 기증한 바 있다. 북서부의 헐리우드·비벌리힐스에는 광대한 영화 스튜디오가 있고, 영화배우와 유명인사들의 고급 주택가로도 유명하다.

### Ⅲ

##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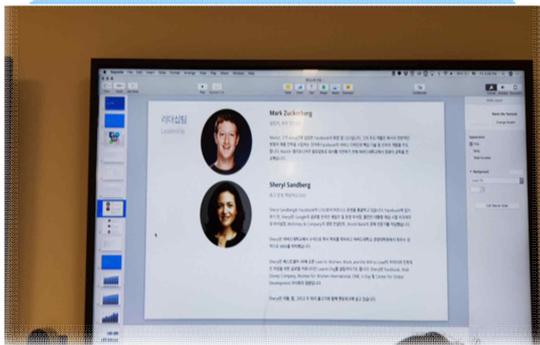
### ① 페이스북 본사 (보고서 작성자 : 이공휘,안장현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2(금) 15:00~16:00
- 참석자 : 연수단 13명, Sora elcan(페이스북 본사 마케팅부) 외 1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충남도의회 연수단의 페이스북 방문을 환영함.



<페이스북의 브리핑 자료화면>

- 페이스북은 전세계 25억명의 사용자가 있는 세계최대의 SNS 서비스 기업으로 아시아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보급률 그리고 훌륭한 IT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페이스북에서는 한국의 인재 및 기업들과 협력할 것을 기대함.

###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연수단은 작은 벤처기업에서 세계최고의 기업이 된 페이스북의 성장스토리에 관심이 많음.
- 한국에도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벤처기업 성장에 효과적일지 조언을 듣고 충남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방문하게 되었음.
- 아울러,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데, 페이스북에서 홍보에 도움을 준다면, 엑스포 개최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④ 질의 응답

Q :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벤처 창업제도가 있는지? 혹은 내부의 창업보다는 M&A 위주의 진행을 하는지?

A : M&A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팀이 따

로 있음.(마켓디렉터 팀) 또한 내부에서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음.

Q : 중국 시장의 경우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A :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우리는 상관하지 않음. 그러므로 중국시장에는 진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나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음. 단, 중국이 외국에 마케팅을 하는 경우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음.

Q : 국내의 포탈업체인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에는 게임, 금융, 상품판매, 웹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비즈모델이 한두 개의 기본모델에 집중하고 있고, 주로 광고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A :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돈을 번다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음. 그래서 페이스북은 광고를 할 때도 사용자가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Q :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 수도 중심이 아닌 미서부지역, 그것도 미서부에서 최대도시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 위

치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예로 보면, 수도권이 아닌 충청남도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준다고 판단됨. 충청남도는 첨단산업기술이 발달되어있는 지역인 만큼, 이러한 강점들을 이용하여 충남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요건이나 방향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A : 우선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 미국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다시 일어나기도 비교적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한번 실패하면 큰일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함. 또한 미국의 경우 회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 주식을 줌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른 주인의식의 차이도 있음. 이러한 환경조성이 우선 필요함.

Q : 실리콘밸리 형성에 주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지?

A :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주정부의 특별한 역할은 없었음.

Q : 미국의 경우 벤처창업 후 실패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A : 미국은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벤처캐피탈에서 아이디어가 좋을 경우, 10~20억 정도를 지급해주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시키는대로 하는 문화가 아닌, 스스로 오너십을 갖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Q : 페이스북에서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특별한 방안은?

A : 브레인스토밍과 비슷한 형태로 무작위로 아이디어를 짜낸 다음, 괜찮은 것들은 1~2일 정도 투자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보고, 간단한 시험도 해보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함. <전화부스 형태의 책대여부스>



Q : 회사에서 기부활동을 많이 진행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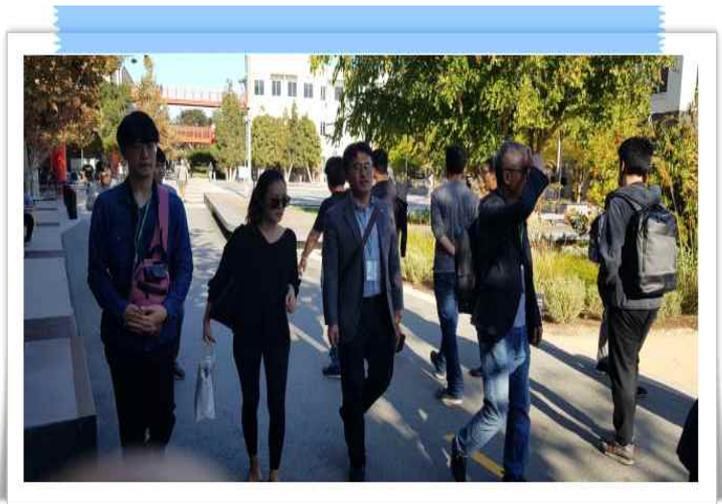
A :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주커버그는 전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함. 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음.

## ⑤ 시사점

○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모습은 학교 캠퍼스와 비슷했고,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음. 이러한 자유로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됨.

- 또한 백인, 흑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들의 인재들이 회사 이곳저곳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특별히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IT기업 특성상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페이스북 캠퍼스라 불리는 이곳은 업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각종 휴게공간, 식당,



커피숍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야외공연시설도 있어 직원들 간의 동아리 문화도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가수들도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직원친화적인 기업을 조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 페이스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말단 직원들도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주커버그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마크주커버그와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누구나 마크주커버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마크주커버그는 진지하게 답변을 하며,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존중받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함.

- 페이스북 곳곳에 ‘Move Fast and Break Things’ 라는 문구가 적혀있음. 한국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완



성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고 생각함. 페이스북은 우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빨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도하여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함.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적극

<회사 곳곳에 쓰여있는 문구> 도입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 충청남도는 창업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함.

- 단순히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에 대해 투자해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충청남도가 만들어주

면 자연스럽게 창업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고 기업들간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함.

## ⑥ 방문기관 수집자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스북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전세계 25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SNS 서비스 기업이다.>

통계  
Stats

Headquarters 글로벌 헤드쿼터

1 Hacker Way, Menlo Park, California 94025

Statistics

2018년 8월 기준

- 15억 일일 활성 사용자
- 22억 월간 활성 사용자
- 월간 활성 사용자의 3분의 2가 일일 활성 사용자

직원수: 30,275명

Offices

U.S. offices

Atlanta, Austin, Boston, Chicago, Dallas, Detroit, Denver, Los Angeles, Menlo Park, Miami, New York, Reno, Seattl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offices

Amsterdam, Auckland, Berlin, Brasilia, Brussels, Buenos Aires, Dubai, Dublin, Gurgaon, Hamburg, Hong Kong, Hyderabad, Jakarta, Karlsruhe, Kuala Lumpur, London, Madrid, Melbourne, Mexico City, Milan, Montreal, Mumbai, New Delhi, Paris, Sao Paulo, **Seoul**, Singapore, Stockholm, Sydney, Tel Aviv, Tokyo, Toronto, Vancouver, Wars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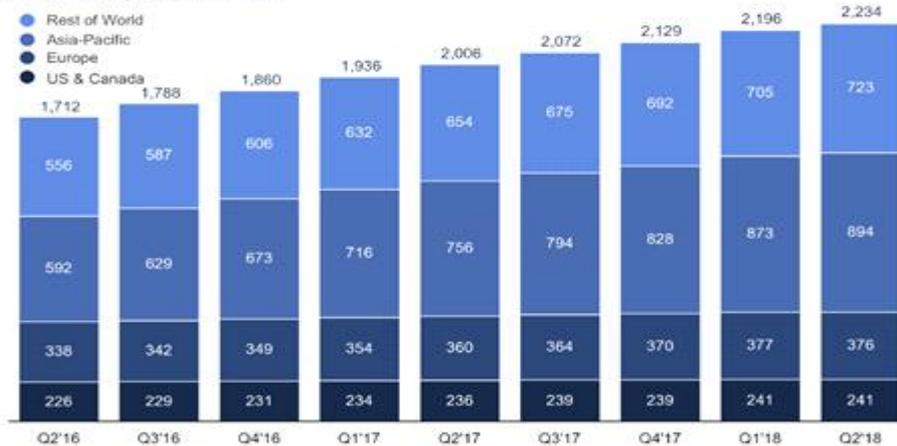
Data Centers

Altoona, Ashburn, Forest City, Lulea, Prineville, Sunnyvale

<페이스북은 전세계에 지사들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사용자는 22억명에 이른다는 페이스북의 설명이다.>

월간 활성 사용자

Monthly Active Users (DAUs), in Mil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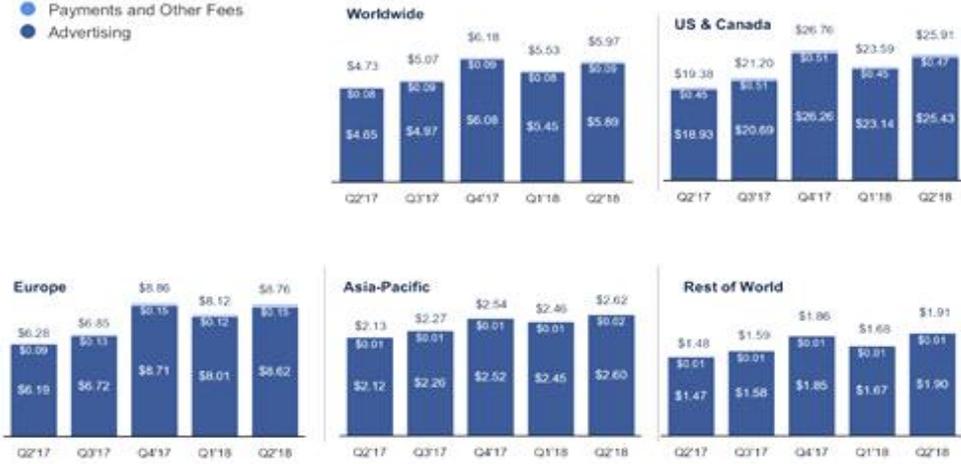


<페이스북은 22억명에 이르는 월간 활성사용자는 매분기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권보다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그 외지역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 가입자당 평균 수익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 Payments and Other Fees
- Advertising



<페이스북의 가입자당 평균수익은 북미권이 가장 높으며, 유럽, 아시아, 기타지역들 순이다.>

## ②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보고서 작성자 : 조길연,홍재표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3(토) 12:00~13:00
- 참석자 : 연수단 13명, 한인회 김관희(前회장) 외 2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북가주에 거주하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현재 교포사회의 내적인 단결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사회에 협력단체로서의 기능과 한인사회와 미국사회를 잇는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한인사회를 돕는 데에 있음.
-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교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2년에 발족되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한인 인구에 비례하여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되었음. 때로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체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열었고,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한 협력단체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때로는 불행을 당한 교민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벌이기도 했음.
- 우리 교민들과 한인사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1980년에는 이민국에서 실시하여 왔던 시민

권 인터뷰를 한인회관에서 실시하도록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정립하고 본격적인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으로써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칩.

###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충남도의회와 샌프란시스코 충청향우회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고향인 충청남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충청향우회를 방문함.

- 아울러,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충청향우회에서 홍보에 도움을 준다면, 엑스포 개최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④ 질의 응답

Q : 충청남도에서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사무실로 배송되고 있는지?

A : 현재 충남도정 신문을 잘 받아보고 있고, 이를 통해 고향소식을 알 수 있어서 기쁨.

Q : 한국물건을 파는 한인 마트에 가면 충남의 쌀이라든지, 충남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많이 있는지?

A : 물건에 충남의 것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상품들이 한인마트에서 볼 수 있으므로, 충남상품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Q : 충남의 농산물을 미국에서 세일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미국에서 한국 농산물의 유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농협임. 미국 내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도 있음. 농협을 통해 충남의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한인마트의 전라남도 홍보모습>

샌프란시스코에는 없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농협지점들도 있어, 예전부터 충남의 농산물들이 직배송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음. 또한 한인회 행사시 도에서 직접 나서서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충청남도 스스로 홍보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함.

Q : 충청남도에서 한인회로 연락을 하면 충남관광 등 여러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지. 아울러, 2020년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도 가능한지.

A : 가능함. 충남도에서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이 있음.

Q :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느끼시는지, 특히 미국 유학의 문턱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발전한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 우리나라가 잘살게 된 것은 피부로 느껴짐. 미국 곳곳에서도 느낄 수 있고, 한인들에 대한 대접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짐.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교포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임.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우리는 교포 3,4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한인들을 위한 학교나 기관들을 세워야 함.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⑤ 시사점

- 미주한인의 날은 매년 1월 13일로 미국 연방의회가 미주한인의 날을 제정한 것은 미국사회에서 재미한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미주한인들은 미국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위상은 크게 제고될 수 있었음.
-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거사가 행해진 지역으로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한인행사에 대한 열기가 높은 곳으로 충청도에서 미국에 직거래 장터나 농산물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됨.
- 또한, 충청도에서 농산물 수출시 농협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진행하면 성공적인 수출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한인회에서는 교포 3,4세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③ 머레이 팜 농장(보고서 작성자 : 오인환,이선영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5(월) 11:00~13:00
- 참석자 : 연수단 13명, Steven Murray(머레이팜 홍보 담당자) 외 1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머레이팜 농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함.
- 머레이팜 농장은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딸기와 아스파라거스, 17여 종류의 체리, 살구, 블루베리, 블랙베리, 자두, 옥수수, 멜론, 토마토, 아시안 배, 펠킨, 시트러스와 오렌지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수확할 수 있는 곳임.



<스티븐 머레이의 현장브리핑 모습>

- 특히, 지금 10월에는 할로윈을 맞아 ‘옥토버 펀 페스트’ (October Fun Fest)가 진행중이

어서 더욱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미로와 옥수수 밭 미로 등이

들어서며, 농장 동물원, 돼지와 오리 레이스 등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함.

- 머레이팜 농장의 홍보담당자인 스티븐 머레이는 중국북경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에도 여러차례 방문한 적이 있음.
- 머레이팜 농장은 전국의 수십 개의 마켓 체인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음.
- 방문자들은 전세계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평균 방문자는 평일에는 1천명, 주말에는 2천명 정도 되며 방문자가 많은 날은 하루에 4천명 이상 방문하기도 함.
-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칩.

###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연수단은 유기농 농산품으로 유명한 머레이 패밀리팜 농장의 우수한 농산물과 유기농법에 관심이 많음.
- 특히 충청남도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유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청남도과 도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 방문하게 되었음.

- 아울러,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세계적인 농장인 머레이팜 농장에서 홍보에 도움을 준다면, 엑스포 개최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④ 질의 응답

Q : 머레이팜 농장은 유기농법으로 유명한데, 꽃가루 수정시 나비나 벌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A : 머레이 팜 농장에서는 나비와 벌을 둘 다 접목시키는 것은 하나, 주로 벌을 이용해서 진행함.

Q : 강수량이 적은지역인데, 농업용수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A : 강의 거리가 약 300km로 거리가 먼 상황으로, 물을 압력을 통해 끌어와서 공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물공급에 대한 수수료는 농장에서 부담하고 있음.

Q : 딸기 하나만 봐도 수십 종의 딸기가 있는데, 잘팔리는 한두 종류가 아닌 수십 종을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해야 함.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하기도 함.



<한가지 과일의 다품종 재배모습>

Q : 품종마다 재배조건이 다른데 어려움은 없는지?

A : 품종마다 재배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음. 하지만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루트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Q : 중국에 유학을 간 계기는?

A : 중국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인 미국시장을 벗어나 중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농장에서 하게 되었고, 내가 선택되어 중국으로 유학보냈음. 나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인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학위를 따며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우리 농장의 미래를 설계했음.

Q : 중국에서의 전공은 무엇인지? 이웃나라인 한국에 와본

적은 있는지?

A : 중국에서의 전공은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부전공으로 무역학을 배웠음. 한국은 두 번 가봤으며, 부산과 서울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임.

## ⑤ 시사점

- 머레이팜 농장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부유층의 비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부유층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국 농산물보다는 선진국들의 유기농 농산물에 관심이 많아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오래전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던 머레이팜 농장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 홍보담당자인 스티븐 머레이를 중국 북경으로 유학보내, 중국을 배우고, 중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함.
  -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농장의 인력을 유학보낸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됨. 현재 머레이팜 농장은 스티븐 머레이의 중국유학 이후로 중국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점은 한국농업계가 배울점이라고 판단됨.

- 농가에서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을 위해 유학을 보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지역단위 농협이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영농후계자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시장성이 큰 국가들과 교류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 방법들은 미국과 한국의 자연환경이 매우 달라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농장들처럼 단순히 과일따기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농장 전반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랙터 운행과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작은 놀이시설, 키즈존, 각종 모형들을 설치하여 가족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농장으로 만든 것은 인상적이었음.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 농장의 경우 생과일 이외에 살 품목이 많지 않지만, 머레이팜 농장의 경우 재배된 농산물을 상품화(말린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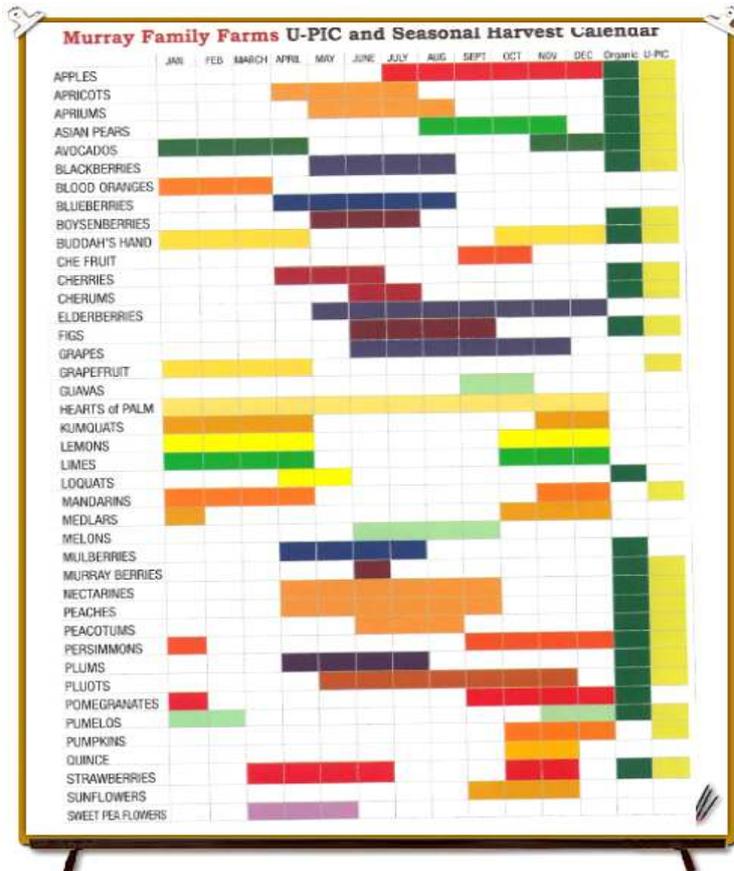
<농장 내의 키즈존>

과일스낵 등) 하여 농장 앞에서 팔고, 유기농 아이스크림과 각종 공예품, 그리고 커피를 비롯한 차종류도 함께 팔아 농장 안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조성해 놓은 것은 우리나라 농가들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⑥ 방문기관 수집자료



<머레이팜 농장은 1년 내내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여 농산물 재배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레이팜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들의 재배와 수확 시기를 표시한 캘린더>

EVERY DAY FAMILY FUN!

**Murray Family Farms** 

**OCTOBER FUN FEST**  
BAKERSFIELD 2018 CALIFORNIA

**SPOOKLEY** visits the farm everyday!

**Ride to the SPIDER corn maze!**

**Flash Light Nights in the Corn Maze**  
OPEN until 10 pm  
Fridays & Saturdays  
in October

**OPEN Every Day in OCTOBER**

Check out: [MurrayFamilyFarms.com](http://MurrayFamilyFarms.com)  
for details on times, days, activities, prices, discounts & more!

Enjoy a hayride to the Pumpkin Patch, Butterflies, Animal Shows, Animal Train, Spookley Maze, Corn Bin, New Giant Super Slide...and more!

**Gal Okie Orchard Kitchen**  
Okie Meat Pies  
Okie Fruit Pies

**Chevron**  
OPEN 24 HOURS  
Free Fruit  
with Fill-Up!

**BIG RED BARN Country Store**  
6700 General Beale Rd  
Bakersfield, CA 93307  
661.330.0100

Sponsored by:  
**KERN MACHINERY**

[www.MurrayFamilyFarms.com](http://www.MurrayFamilyFarms.com)

<연중 가장 큰 행사인 할로윈을 맞아 머레이팜 농장의 주요 재배물중 하나인 호박을 이용한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 4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보고서 작성자 : 이영우,한영신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7(수) 14:10~16:00
- 참석자 : 연수단 13명, Jerome E. Horton(Board Member, Third District) 외 2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조세형평국 이사회 멤버들은 납세자들이 선거로 뽑는 직책으로, 현재 3지역 국장인 미스터 홀튼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15년간 일한 경험도 있고, 주 국회의원을 2회 역임하였으며, 세금관련 업무경험은 약 35년 정도로 조세 전문가임.



-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매우 복잡하며, 재산세의 비중이 매우 높고, 32종 40여가지의 세금이 있음.

##### <조세형평국 홀튼국장의 브리핑 모습>

- 2017년 기준 약 60조달러 정도의 세금을 걷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제규모가 큼. 캘리포니아

58개 지역에 한명씩 담당자를 배치하여 세금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전체지역을 4개 파트로 나누어 총괄 담당자를 둬.

- 교회 및 복지시설, 상이군경 등은 세금이 면제되며,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금의 12%가 공교육에 투자되고 있음.

###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연수단은 미국의 조세제도와 운영실태에 관심이 많음.
- 특히 충청남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세금부과와 관리, 체납자에 대한 처분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운영에 접목하고자 조세형평국을 방문하게 되었음.
- 아울러,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④ 질의 응답



Q : 세금을 면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교회 등 종교기관이나 복지기관 등은 세금을 공제하고,

<조세형평국과의 질의응답 시간> 정년퇴직 군인들이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세금을 면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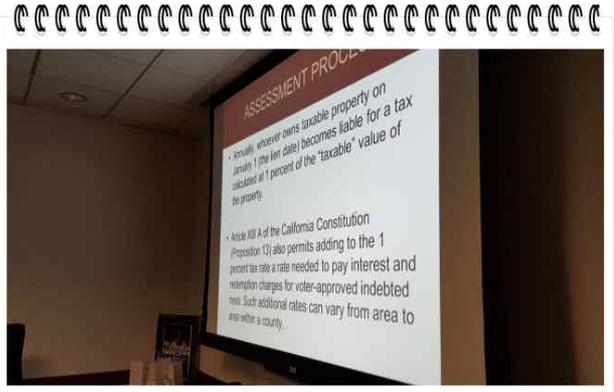
Q : 기부자들은 세금이 공제되는지?

A : 한 사람당 만불을 감면할 수 있음. 비영리기구에 낸 기부금은 전액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교회의 경우 기부해도 세금감면 대상은 아님.

Q :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주택가격이 높는데 세금을 통해 조절하는 정책이 있는지?

A : 현재 주택의 높은 가격은 캘리포니아의 큰 문제이며, 도시마다 큰 차이가 있음. 도시 집중화를 벗어나 외곽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전체 미국 투자의 절반이 캘리포니아 투자인데 이것이 땅값을 올리고 있는 주원인임.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텍스

공제를 해주고 싼값에 집을 공급하는 정책 추진 중임.  
 (저가 주택을 건설했을 때 20% 텍스감면) 또한 대중교통 등을 통한 도시확장으로 도시를 넓혀 집값을 컨트롤해야함.



Q : 세금감면이 전체건물의 20%인지, 주택중 20%의 저가임대분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A : 전체 건물의 20%임. 노인을 위한 주택, 시민을 위한 주택에 텍스프리가 제공됨.

Q :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A :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으로 구역을 나눔. 10년~15년에 한 번씩 인구를 기준으로 구역(약 950만 정도)로 나눔.

Q : 충청남도과 캘리포니아주는 1997년에 우호협력 협정 후 2007년까지 교류를 했는데 추후 지속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

A : 대환영임. 여러 도시가 결연을 하려고 했는데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은데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논의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함. 하지만 이것은 주지사가 결정할 문제임. 하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Q : 체납분에 대해 여기서 징수를 하는지? 대략 체납분이 어느 정도인지?

A : 1년에 약 10조정도 못걸어들이고 있음, 주로 블랙마켓 (갱이나 마약)에 문제가 있는데, 대마초 같은 것을 합법화하여 검은 돈을 양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Q :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 체납자의 경우 압류, 출국금지 또는 압수수색 등을 하는데 여기에도 실시하는지?

A : 형법에서는 가능, 민법에서는 증거를 찾아내야 가능함에 따라 법적 허점을 이용해 마피아나 갱조직이 빠져나가고 있음. 하지만 범죄조직들의 은닉된 재산들을 찾아내 세금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을 와해시키기도 함.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음.

Q : 세금 탈루를 찾아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지? 조세불복자에게 재판소송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A : 보상제도는 없어졌음. 조세에 불복을 할 경우, 슈퍼바이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Q : 1년에 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리는지?

A : 법적으로 한 달에 한번 열리도록 되어있으나, 문제가 복잡한 경우 자주 만남.

Q : 회의의 주제는 어떤 것들인지?

A : 58개 카운티에서 올라오는 이슈, 시민들의 건의,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주제들이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음.

Q :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힘들지 않은지?



A : 현재 실업률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 문제임. 경제순환에 따라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동조정될 것으로 기대함.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현재 거의 최고치라고 판단되며,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Q : 국가유공자가 면세자가 될 수 있는지?

A : 주마다 다름(세금을 걷는 방법이 달라서 주마다 다름) 또한 유공자의 종류에 따라 세금 감면 제공 비율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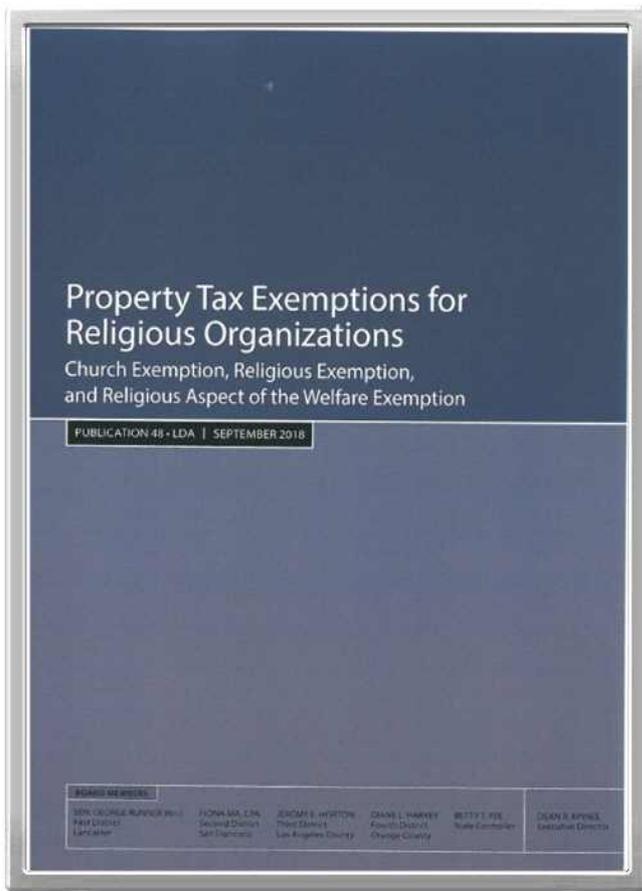
## ⑤ 시사점

○ 캘리포니아 세금업무를 총괄하는 조세형평국의 국장인 미스터 홀튼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약직, 임기제, 선출직 공무원의 수가 매우 많으며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유연성도 높다는 점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 세금을 징수하여 많은 부분을 공교육에 투자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음.
  - 우리나라도 전체세금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여전히 사교육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공교육에 투자하는 방식과 우리나라가 공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도시들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음.
  - 우선 미국의 경우 국토가 넓기 때문에 도시확장을 우리나라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은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 미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건물을 지을 때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으로 지으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과 캘리포니아주는 1997년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나, 큰 교류활동은 많이 없었음.

-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도 전세계에서 캘리포니아주와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등을 많이 시도한다고 알고 있으나, 대부분 처음과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안타깝다고 표현함. 하지만 진정성있게 교류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강조함. 향후 우리 도에서도 외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단순한 실적을 올리거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우호협력,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⑥ 방문기관 수집자료



<종교단체들의 재산세 면제에 관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보고서>

## WELFARE EXEMPTION (RELIGIOUS ASPECT)

### Property Eligible for the Welfare Exemption

The Welfare Exemption is available for property own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that uses the property exclusively for religious purposes, including worship and school activities. While this publication discusses only how the Welfare Exemption relates to property own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the exemption is also available for property owned by other organizations and used exclusively for charitable, scientific, or hospital purposes.

#### Eligible property 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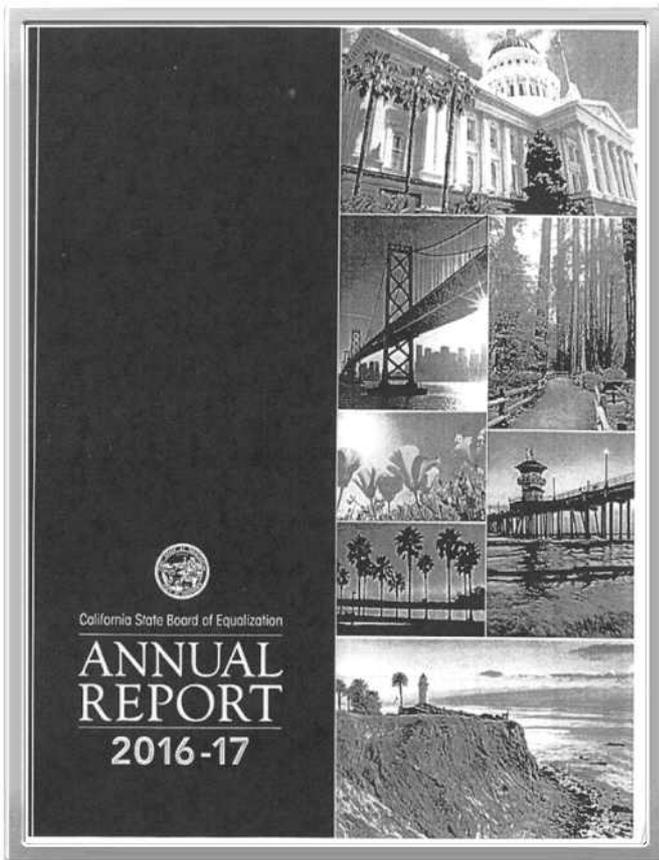
Certain uses of property by a church or religious organization do not qualify for the Church or Religious Exemption. However, they may qualify for the Welfare Exemption. Eligible us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Administrative offices for two or more churches (such as diocese or district headquarters).
- Social halls, community centers, and youth centers.
- The primary residence of clergy (for example, pastor, minister, rabbi, imam, or priest) when the use of the property is incidental to and reasonably necessary to accomplish the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s exempt purpose.
- Retreats, monasteries, convents, housing for missionaries on furloughs, and housing for certain other employees and volunteers.
- Reading rooms not located on the church premises.
- Novitiates and seminaries. *Please note:* Some seminaries should file for the College Exemption instead—contact your county assessor for information.
- Housing for aged people or people with disabilities, orphanages, rescue missions, halfway houses for ex-addicts or parolees, and lower-income housing.
- Camps and conference grounds.
- Hospitals.
- Social welfare and relief for the needy (actual aid—money, meals, etc.).
- Emergency or temporary shelters and related facilities for homeless individuals and families.
- Regularly operated thrift stores only when they are part of a plann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ies, or both.
- Bingo, when allowed by local ordinances, provided the property is primarily used for exempt activities and the bingo proceeds are used for the organization's religious purposes. A property used primarily or solely for playing bingo, such as a bingo parlor, does not qualify.
- Property needed for parking the vehicles of people participating in a religious activity.

#### Property under construction or demolition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or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land required for their convenient use, and equipment in them may be eligible for the exemption if their intended use would qualify the property for the Welfare Exemption. "Course of construction" includes the demolition of a building with the intent to replace it with facilities that will be exclusively used for an eligible activity.

〈사회복지 시설들의 조세 면제에 대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보고내용〉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연간보고서〉

REVENUES and OPERATIONS

**Alcoholic Beverage Tax**

For fiscal year 2016-17, alcoholic beverage tax revenues totaled \$368.4 million, a 0.1 percent decrease from \$368.7 million in 2015-16. As of June 30, 2017, the number of program registrants totaled 8,757. Consumption data is found in Tables 28 and 29 in the Appendix.

**California Tire Fee**

Revenues for the California Tire Fee for fiscal year 2016-17 totaled \$62.9 million. As of June 30, 2017, the number of program registrants totaled 14,863. The BOE administers this fee in cooperation wit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CalRecycle) and the Air Resources Board (ARB).

**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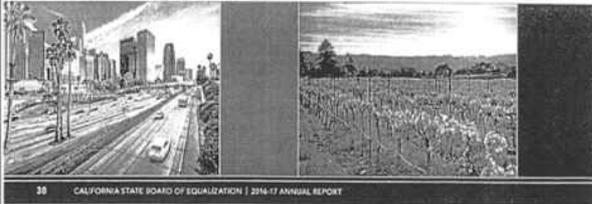
For fiscal year 2016-17, 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collections totaled \$21.2 million. As of June 30, 2017, program registrants numbered 653. The BOE administers this fee in cooperation wit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Program**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e revenues totaled \$9.5 million. This program requires statewide licensing of all manufacturers, importers, distributors, wholesalers, and retailers of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As of June 30, 2017, the number of licenses consisted of: cigarette distributors (812); cigarett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31); tobacco product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256); cigarette retailers (33,814); and cigarette and tobacco wholesalers (404). The Program and Compliance Division processed 310 citations and conducted 117 appeal hearings.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es**

Combined revenues from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otaled \$1.2 billion in fiscal year 2016-17, including \$1.1 billion from cigarettes and \$95.3 million from other tobacco products. These taxes are collected from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distributors. As of June 30, 2017, 802 tobacco products distributors and 80 cigarette distributors held licenses under this program. These license numbers do not include 39 California cigarette or tobacco product consumers who are required to pay tax on their out-of-state (internet or mail order) purchases because they do not hold licenses.



<연간리포트에 나온 주세와 담배세 등에  
관한 설명보고>

## 5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보고서 작성자 : 이공휘,홍재표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8(목) 10:30~11:30
- 참석자 : 연수단 13명, Jamie Hwang(Deputy) 외 2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LA시의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LA 시의회 의장인 Herb J. Wesson, JR의 보좌관으로 한인출신인 Jamie Hwang이라고 함.

- LA시의회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입법활동과 예산협의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음.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의장 보좌관의 브리핑 모습>

###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연수단은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에 관심이 많음.
- 특히 충청남도는 선진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도의회 운영에 접목하고자 캘리포니아 주 LA 시의회를 방문하게 되었음.

- 아울러,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데, LA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다시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④ 질의 응답

Q : 시의원의 의원보좌관 수와 형태는?

A : 시의원은 보통 15명의 보좌관이 있고, 시의장의 경우는 20명까지 보좌관을 둘 수 있음.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며 별정직 형태의 공무원으로 시의장이 직접 고용함. 외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당선이 되지 않거나 그만둔 의원들의 보좌관을 스카웃해서 채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음. 다만 공무원채용시험을 <LA시청,시의회 전경>



통해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의원이 면직되면

보좌관을 그만두어야하고, 시청으로 가서 근무할 수 없음.

Q : 시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는지?

A : 시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음. 시장의 인사권과는 별개임.



Q : LA시의회의에서는 입법활동을 많이 하는지?

A : 시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제정하기도 함. 하지만 최종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결재가 필요함.

Q : LA시의회의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지?

A : 개별적인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한 사항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존재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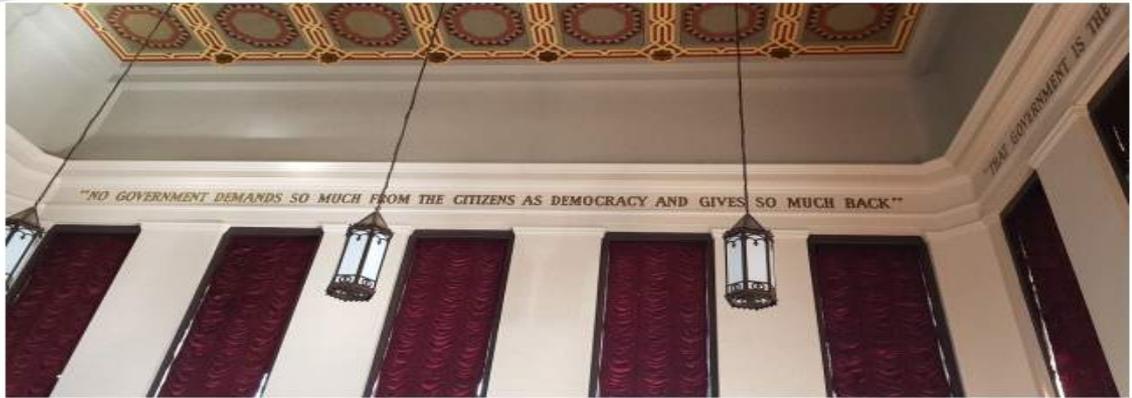
Q : 시의원들의 정당이 따로 있는지?

A : 시의원들의 경우 정당은 없고, LA시의회의의 경우 15명의 의원들 중에서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함.

Q : 시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지?

A : 참석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 의회와 시장의 힘이 대등하여 시장이 의회에 참견하지 않음. 감시 견제기능이 아닌 결정 권한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음.

## ⑤ 시사점



<민주주의만큼 시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체제는 없다>

- LA시의회는 의회를 Council이라고 표기하는데, 한국은 Assembly(혹은 Congress)라고 표기한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Council은 보통 선출직 공직자가 행정부의 책임자가 되거나 운영책임을 지는 대의제 운영 방식이고, Assembly(혹은 Congress)는 선출직 공직자가 계층이나 계급 등을 대변하여 행정부에 요구하거나 감시, 견제하는 대의제 운영방식으로 미국 LA시의회와 우리나라 의회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LA시의회의 의원 15명은 시장과 함께 시정을 공동책임지는 사람들로 기업의 이사회와 비슷하다고 판단됨.
- LA시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기초의회임에도 보좌관의 수가 15명 이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회의장 방청석에는 집행부 직원들은 입장하지 않으며, 특이한 점으로는 한번의 회의에서 1명의 시민이 사전신청을 통해 2분 동안 발언을 할 수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부분은 주목할 만함.

○ 의회의 회의장면은 LA의회 TV를 통해 24시간 방송되고 있어 시민들이 언제나 의회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 충남도의회도 독자방송국을 신설하거나, 기존 방송국에 독자시간 편성 등을 활용하여 충남도의회 회의진행 상황이나 의회 홍보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2분 시민발언대>

○ 아울러, 미국은 모든 공무원들의 급여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느껴짐.

○ 또한 LA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LA시청 앞에서 지진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주도의 시민행사에 민간기업(보험회사, 비상용품업체 등) 등이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상적이었음.

## ⑥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보고서 작성자 : 안장현,오인환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8(목) 12:00~13:00
- 참석자 : 연수단 13명, Margie Abab(Director) 외 2명
- 회의진행 : 브리핑-위원장인사-질의응답-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 전경>

이며, 강좌에서 책이나 부대용품이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이 들어감.

-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은 사이프러스 대학교 내에 위치한 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을 주는 학교는 아니고 누구나 와서 등록해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학비는 무료
- 지역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과 외국인들도 와서 등록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정규과정 졸업한 18세부터 92세 노인까지 우리 교육원들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음.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 ③ 위원장 인사말씀

- 충남도의회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연수단은 미국의 평생교육 운영실태에 관심이 많음.
- 특히 충청남도는 미국의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접목하고자 귀 교육원을 방문하게 되었음.
- 아울러,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함.
- 다시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 ④ 질의 응답

Q : 평생교육원 커리큘럼에 표기되어있는 휴머니티 클래스는 무엇인지?

A : 인문학, 소설, 역사, 사회학 등을 가르치는 강좌임.

Q : 오렌지 카운티에 3개의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의 질의응답 모습>

정규 학생과정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지?

A : 원칙적으로는 정규교과과정을 졸업한 성인들만 올 수 있음. 단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여기와서 강좌를 듣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함.

Q :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A :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3곳의 평생교육원을 모두 합하면 약 30,000명 정도 있고, 그 이외에도 이민자들이나 유



학생들을 위해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음. 최근에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임. 영어를 못하는 사

<평생교육원의 수업진행 모습>

용해서 수업을 진행중임.

람들을 위해 컴퓨터를 활

Q : 이곳에서 근무하는 강사는 정규직인지? 파트타임인지?

A : 대부분의 강사는 파트타임이나, 일부는 정규직이 있음.

Q : 평생교육원의 1년 운영예산을 따로 있는지? 있다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A :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강좌를 들은 시간을 모두 카운트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

Q : 미국으로 오는 한국이민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A : 평생교육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음. 예전에는 불법이민자도 등록하고 다닐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등록이 불가능할 때도 있음. 정부

의 정책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에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강좌> 등록할 때 관련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짐.



Q : 장애인을 위한 강좌가 있는지?

A : 당연히 있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각 분야별로 1명의 전담 직원이 있음.

Q : 평생교육원을 지나오다 보니 수영장이 있던데, 수영장을 일반인도 이용가능한지?

A : 아님, 사이프러스 대학생만 사용, 다만, 방학시즌이나 썸머스쿨이 시작되면, 수업에 등록한 사람들은 이용가능

Q : 시설 운영에 임대료가 있는지?

A : 학교를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음.

Q : 이용하는 연령대가 노인이 많은 것인지?

A : 24~35세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92세까지 있음.

Q : 24~35세의 퍼센티지는?

A : 약 70%정도임.

## ⑤ 시사점

- 우리나라도 비교적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다고 평가받지만, 사이프러스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미국의 평생교육시스템과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짚어봄.
- 우선 개방성에서 차이가 남. 미국의 경우 평생교육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불법이민자들 까지도 포용할 만큼 개방성이 뛰어나. 또한 어린아이와 엄마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부터 90대 노인까지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할 만큼 다양하게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즉 남녀노소,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을만큼 미국의 평생교육은 개방적임.
- 평생교육기관의 기반이 대학교라는 점이 차이가 남. 우리나라도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로



평생교육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많음.

- 미국대학들은 역사적으로 19세기 초에는 대학 확장(University Extension), 1980년대에는

<대학캠퍼스 내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2000년대에는 대외협력체제(Outreach System) 등 이름은 달라하지만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음.

- 지금 미국의 Community College의 학습자 중 25세 이상 성인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Community College는 지역사회대학의 역할 중에서 평생교육사업이 대학의 핵심과제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정규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그리고 자격증 과정과 비자격증 과정이 개설되어 상호교환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목표 코스에 따라서 학제도 6개월 코스부터 3~4년 코스로 다양화되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커리큘럼화 하고 있음.
- 또한, 노인 및 은퇴자 교육이 발달되어 있음.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 디렉터 Margie Abab의 말에 따르면 최장수 등록생 나이는 92세임. 이는 미국의 평생교육원에서 특

이한 케이스는 아님. 미국의 평생교육은 노인들과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 대표적인 노인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직업능력, 취업기술 및 직업기술 교육, 은퇴자 학습기구, 세대 간 교육프로그램, 엘더호스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직업능력, 취업기술 및 직업기술 교육은 평균수명연장으로 젊은 노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하려 하려 함. 또한 국가에서도 노인들은 융통성 있는 시간제 근무, 계절별 근무, 임시적 근무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정부 및 기업의 취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비 환급 또는 면제 지원 정책에 따라 노인들은 학력취득 또는 전문자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 세대 간 교육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 노인과 다른 세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학생들의 제2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인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의 방문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는 느낌을 받음.
-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과 은퇴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단순히 노인들이나 은퇴자들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교과과정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고, 일자리 구직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함.

## ⑥ 방문기관 수집자료

**NOCE NORTH ORANGE**  
NORTH ORANGE CONTINUING EDUCATION

### High School Diploma Curriculum Information

**Total Number of Required Core and Elective High School Credits**

In order to obtain your high school diploma, you are required to complete 160 credits. 110 core high school credits + 50 elective high school credits = Total of 160 units to graduate.

We have a **Residency Requirement**. This means that 20 of your diploma credits must be completed in a NOCE High School Lab with our instructors. Even if you have met all of your subject and elective requirements through the work you transfer to our school, you will still need to complete an additional 20 credits to meet this residency requirement. In the event you have completed all required core and elective credits and are working only on completing your residency requirements, you must complete your residency units in the subject areas of Math (general) and/or English.

**Degree Completion Requirements**

To complete your high school diploma program you must complete the subject and elective requirements as well as the four competency tests if you have not already completed both CAHSEE exams at your current or previous high school.

**Subject Requirements**

English	30 credits
Social Studies	30 credits
Mathematics	20 credits
Natural Science	20 credits
Humanities	10 credits
Electives	50 credits
<b>Total:</b>	<b>160 credits</b>

There are four (4) Competency Tests: Math, Reading, Writing Composition, and Language.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complete NOCE competency exams. If you have already completed both CAHSEE exams at your current or previous high school and it is indicated as such on your official high school transcripts, the proficiency/competency exams required by the NOCCCO North Orange Continuing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Program may be waived.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High School Diploma Program, call 714.484.7038

The North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District (NOCCCO) North Orange Campus is an 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It is a member of the NOCCCO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s committed to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students. NOCCCO is an affirmative action institution and is committed to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students. NOCCCO is an affirmative action institution and is committed to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students. NOCCCO is an affirmative action institution and is committed to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ll students.

NOCE NORTH ORANGE  
111 Appleton Blvd., Suite 200, Brea, CA 92603  
PHONE: 714.484.7038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에서 고등학교 과정 커리큘럼에 관한 정보>

SEPTEMBER/VOL 60 **NOCE NORTH ORANGE** FALL 2018  
CONTINUING EDUCATION

### Kids' College and Teen Program

Anaheim • Cypress • Fullerton

Welcome to the Kids' College and Teen Program! Most classes are held at our three campus locations: Anaheim Campus, Cypress College, and the Washie Center (Fullerton). Occasionally classes are offered at other locations and those are identifi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class. Class enrollment is limited and is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Classes may be cancelled due to low enrollment. Classes may be added after the schedule is printed. For the most up-to-date listing log onto [www.noce.edu/kids](http://www.noce.edu/kids) and check the Kids' College Schedule. Some classes require supplies; please check with the office for specific supply lists.

Parent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children. Each child should be accompanied by an adult to and from class. Please note, classes are dismissed 10 minutes earlier than the end time listed in the schedule to allow teachers and students time to prepare for their next class. The registration receipt will show the exact class and time.

<p><b>Computers</b></p> <p>An Acceptable Use Policy Form is required. Parents may pick up at a form at registration. Some classes may require a free Yahoo! eMail account; the instructor will supply the information.</p> <p>It is required that students bring a USB Flash Drive - minimum 256 MB to all Kids' College &amp; Teen Program computer classes.</p> <p><b>NOCE NORTH ORANGE</b></p> <p><b>INTRO TO COMPUTERS (AGES 8+)</b> KIDS101 Have fun while developing proficiency in software usage and keyboard knowledge.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09 Payne \$75</p> <p><b>COMMON CORE: PREPARATION FOR COMPUTER KEYBOARDING (GRADES 4 - 6)</b> KIDS101 This course prepares student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Common Core standards. Beginning in 2015 students must be able to type multiple paragraphs/paragraphs as part of the Common Core requirement.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09 Payne \$75</p>	<p><b>Arts &amp; Crafts</b></p> <p><b>WONDERFUL ARTS AND CRAFTS (AGES 5-7)</b> KIDS413 Come and create art and craft projects using different media and supplies. Dates: Sep 22-Oct 27 CRN: 2189 20:30-10:30a CCTC2-204 Gagne \$75</p> <p><b>PENCILS &amp; PAINTBRUSHES (AGES 4-6)</b> KIDS415 An art class that will encourage your child's imagination to soar! Designed to build self-esteem through individual expression while interacting creatively with other students. Chalkboard will learn basic drawing skills and fun techniques of watercolor painting, illustration of sign and other appropriate projects. Each session requires different themes. Repeat students will experience more advanced levels of project requests. Pick up a resource materials list at the first class meeting.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04 Gagne \$75</p> <p><b>ART IS FOR YOU (AGES 5-6)</b> KIDS414 Calling young artists here and there! Come and discover all the ways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to create something new and exciting. We will use our imaginations, photos, and use the tools to create our own projects.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04 Gagne \$75</p>	<p><b>WONDERFUL WATERCOLORS (AGES 8+)</b> KIDS202 Come have fun learning basic watercolor painting techniques. No experience is necessary! Please bring 1" x 6" of 2" x 3" watercolor paints, a pad of inexpensive watercolor paper and two watercolor brushes (one 1/4" round and one 1/2" flat).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17 Gagne \$75</p> <p><b>ANIME DRAWING (AGES 8+)</b> KIDS1012 Learn how to draw unique anime fantasy characters and settings. Also learn how to draw and animate the characters. Fantasy characters will be created using colored pencils, markers and watercolor. Dates: Sep 22-Oct 27 CRN: 2177 \$175-185 CCTC2-201 Gagne \$75</p> <p><b>ART TECHNIQUES FOR KIDS! (AGES 4-6)</b> KIDS599 Come make fun and beautiful art! Learn how to use paints, markers, and how to paint on paper and canvas. We will use our imaginations, photos, and use the tools to create our own projects.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17 Gagne \$75</p> <p><b>ART TECHNIQUES FOR KIDS! (AGES 7-14)</b> KIDS1011 Dates: Sep 22-Oct 27 CRN: 2445 LOCATION: INSTR: FEE: 2188 \$175-185 CCTC2-217 Gagne \$75</p>
---	--	--

Anaheim • Anaheim Campus • MESA • CC-Cypress College • VHS-Whittier Station • NY-Na-Class Schedule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에서 아이들과 10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orth Orange Continuing Education / Cypress and Fullerton Colleges**



**WINTER 2019  
TRANSITIONING TO COLLEGE (IHSS 300)**

**Interested in attending Cypress or Fullerton College?**

This short-term class is open to ALL North Orange Continuing Education students who wish to:

- Learn about Cypress College and Fullerton College admissions and academic programs
- Receive financial aid, EOPS, and student services information
- Take a campus tour and experience campus life
- Earn one (1) credit as a NOCE High School Diploma Program student

**Cypress College CRN 51057**

- Mon/Wed, February 6-27, 2019 from 3 p.m. to 5:30 p.m.
- Cypress College Campus, Bldg. 18, Rm. 118 and Bldg. TE2, Rm. 200 on February 20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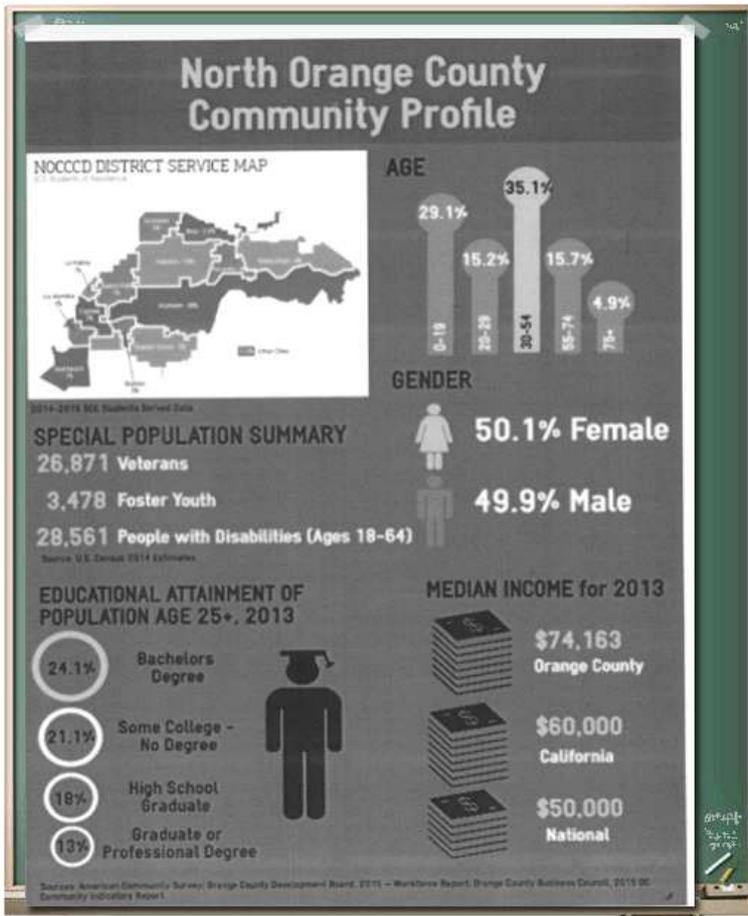
**Fullerton College CRN 60001**

- Mon/Wed, January 28-February 19, 2019 from 3 p.m. to 5 p.m. (Note: Mon, February 4 from 2 p.m. to 5 p.m. in the FC Assessment Center)
- Fullerton College Campus, Bldg. 7BD, Rm. TBD

The North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District's (NOCCCD) North Orange Continuing Education (NOCE) Administrative Offices are located at 1840 W. Riverside Drive in Anaheim, California 92705. For more information, call the toll-free or visit www.noce.noce.edu. It is the policy of NOCCCD to provide an educational, employ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in which no person shall be arbitrarily subjected to discrimination or sexual harassment, nor intentionally denied full and equal access to the benefits of its/their programs or activities on the basis of ethnic group identification, national origin, religion, age, gender, race, color, ancestry, sexual orientation, marital status or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s defined and prohibited by state and federal statutes. The District is also committed to maintaining campuses that are free of harassment, drugs and alcohol. To read the entire NOCCCD nondiscrimination statement, see the policy in the General Information section in the back of the NOCE class schedule.

10/4/2018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에서 겨울에 짧은 기간동안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의 연령별, 성별, 최종학력별, 수입별 등을 구분한 등록생들의 기초데이터이다. 이 자료는 연수단과의 질의응답 중 연수단의 자료요청에 의해 별도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된 자료이다.>

## 7] 글렌데일시 소녀상(보고서 작성자 : 이선영,한영신 의원)

### ①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8. 10. 18(목) 16:00~16:30
- 참 석 자 : 연수단 13명
- 진 행 : 소녀상설명-묵념-기념촬영



### ② 브리핑 주요내용

- LA북동쪽 소도시 글렌데일에 위치한 글렌데일 소녀상은 (주소:222 E. Harvard St. Glendale, CA 91205) 2013년 7월 세워진 소녀상으로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사례임.
- 일본이 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패소했고, 일본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한인들은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 청원을 올림. 청원명은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의 평화기념상을 보호해주세요(Please Protect The Peace Monument in Glendale Central Library)”



○ 글렌데일시 소녀상 옆에 소녀상에 대한 설명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다음과 같음.

- In memory of more than 200,000 Asian and Dutch women who were removed from their homes in Korea, China, Taiwan, Japan, the Phillipines, Thailand, Vietnam, Malaysia, East Timor and Indonesia, to be coe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Imperial Armed Forces of Japan between 1932 and 1945.
- 자신의 조국인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성노예로서 강제로 끌려간 20만명 이상의 아시아와 네덜란드 여성들을 기억하고
- And in celebration of proclamation of “Comfort Women Day” by the City of Glendale on July 30, 2012, and of passing of House Resolution 121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on July 30, 2007, urg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se crimes.

- 2012년 7월 30일 글렌데일 시의 “위안부의 날” 선언과 2007년 6월 30일 미의회의 미하원 위안부 결의문 채택 (House Resolution 121)을 기념하며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se unconscionable violations of human rights shall never recur.
- 인권에 대한 이와 같은 비양심적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July 30, 2013
- 2013년 7월 30일

### ③ 방문소감

- 글렌데일시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은 글렌데일시와 가주한미포럼이라는 한인단체가 오랜기간 동안 공을 들여 미국 최초로 세운 소녀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소녀상임.
- 글렌데이시 소녀상 건립으로 미국에는 미시간 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 조지아 주 브룩헤이븐 블랙번 메인공원, 뉴욕 맨하튼 뉴욕한인회관에 연달아 소녀상이 건립되어 현재는 총 4곳의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됨.

-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이 소녀상이 세워지고 많은 한인들과 당시를 살았던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나 주변엔 꽃들과 선물이 가득했고,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아이들에게는 소녀상에 새겨진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또한, 글렌데일시의 중앙도서관 옆에 자리하고 있어 미주한인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찾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도 잔혹한 과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소녀상 옆에 위치한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반자이나,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진실된 사과가 없는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일본의 후손들에게도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것이 분명함.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예를 보아도, 과거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에게 무

를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독일의 잘못을 반성했고, 그 이후 독일은 주변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쌓아가며 현재는 유럽을 이끌어가는 대표국가로 성장하였음.

- 일본도 역사왜곡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주변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소녀상을 뒤에서 보면 소녀의 동상 아래로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의 그림자가 비춰지는데, 꽃처럼 밝았던 청춘을 희생당하고, 해방되어서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노인이 된 모습을 보면 그녀들의 애환에 가슴이 아팠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소녀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소녀상 건립 5주년을 맞이하여 글렌데이시 평화의 소녀상은 전 세계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제에 침략당한 대한민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아픈역사의 성지로 자리잡아,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소녀상 앞에서 묵념하는 행정자치위원들〉

## 8 그밖에 참고 정보(보고서 작성자 : 조길연,이영우 의원)

연번	사진	설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동네 주차장이나 노상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 비해 훌륭한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 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들이 눈에 띄게 많았음.</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장애인 정책이 잘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임.</li> <li>-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이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25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도로경계를 벽돌로 만들어 벽을 쌓고, 담쟁이 식물을 심어 벽면녹화를 통해 경관을 향상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함.</li> </ul>

연번	사진	설명
5		<p>- 미국서부지역은 지진발생의 우려가 있어 주택들 사이의 공간이 없이 맞대어 지은 모습을 볼 수 있음.</p>
6		<p>- 미국의 관공서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주말에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을 함. 웨딩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시민들의 각종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함</p>
7		<p>- 미국의 관공서는 아이친화적인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는 거대한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주말을 맞아 많은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음.</p>
8		<p>-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집값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시한 그림.</p>

## 1 페이스북 본사

- 미국의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마인드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 또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벤처캐피탈에서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도 함.
  - 우리 도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시 프로젝트가 실패 하더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내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적용시켜 주고, 관련 교육도 실시해주기를 제안함.
  - ▶ 관련실과 :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통상교류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주커버그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최하위직급 직원부터 창립자까지 모두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
  - 우리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도지사부터 9급 신규공무원들, 도의원들까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제안함.
  - ▶ 관련실과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②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 미주 한인회들의 경우, 고향소식에 대한 소식들을 듣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의 한인회 사무실에 충남도정신문의 배포상황을 점검하고, 배포부수를 상향할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공보관

- 충남의 농산물을 수출할 때, 한인회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면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주 한인의 날 행사처럼 미국 전역에서도 큰 행사를 할 때 오픈마켓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③ 머레이팜 농장

- 머레이팜 농장의 경우,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장의 인력을 해외로 유학보내 미래의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음.

- 최근 우리나라 유기농 농산물에도 해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판로개척을 위해 영농후계자 등의 인력들을 해외로 파견보내는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 4]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 미국의 조세형평국 이사회 멤버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무원으로 민간에서의 세금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됨.

- 우리 도에서도 최근 제정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강화하여 납세자 보호관의 수를 증원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자치행정국 세정과

○ 미국은 재산세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는데, 저가 주택을 건설했을 때 20% 세금을 감면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저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 우리 도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시지가가 넘는 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 서민들을 위한 저가주택을 공급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자치행정국 세정과

○ 캘리포니아 주와 충청남도의 경우 1997년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나, 큰 교류활동은 없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많은 국가들의 교류활동이 체결당시에만 활발하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과 외국의 도시들이 우호협력 혹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함.

▶ 관련실과 :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 5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 LA시의회는 경우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고, 보좌관 수가 15명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우리 도에서도 도청과 도의회의 인사권을 분리시키고 도의원에게 필수보좌인력을 채용해 줄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LA시의회는 경우 의회TV를 통해 24시간 방송되고 있어, 시민들이 언제나 의회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음, 또한 한번의 회의시간에 1명의 시민이 2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2분 발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

- 우리 도에서도 의회방송국을 신설하여 도민들에게 언제나 충남도의회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본회의장에서 짧지만 한 회기당 1회 정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 6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

○ 미국의 경우 평생교육원의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처럼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생활에서 필요하고, 직업적으로 필요한 교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나 은퇴자들의 직업교육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인상적임. 또한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들도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단순 문해교육이나 초급 외국어교육의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에 적용가능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 도내 평생교육원 커리큘럼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 시집오는 많은 외국인신부들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들을 개설하여, 한국생활에 빠른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노인들이나 은퇴자들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함.

▶ 관련실과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실,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1 연수 총평

- 미국 시의회의 지방의회 운영은 기관통합형으로 대립형인 우리나라와 부합하지는 않으나 주민을 대변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미국에서는 의회를 Council이라고 표현함. 의회를 표현하는 용어는 여러단어가 있는데(Council, Assembly, Congress 등) 우리나라는 주로 Assembly(혹은 Congress)라고 표현함.
- 미국의회는 선출직 공직자가 행정부의 책임자가 되거나 운영 책임을 지는 대의제 운영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선출직 공직자가 계층이나 계급 등을 대변하여 행정부에 요구하거나 감시, 견제하는 대의제 운영방식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의회는 이사회 개념으로 시장과 공동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같은 모습임.
- 다만, 인사권의 독립이나 보좌관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비교해보면 훨씬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회기당 1명의 시민에게 2분의 기회를 주고 어떠한 주제든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일부를 지방의회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으며, 의회TV를 통해 24시간 시민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시청할 수 있어서 좀

더 시민에게 가까운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됨.

○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제3지역 제롬 홀튼 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대부분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일부분만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파트가 선출직, 혹은 계약직으로 민간인 전문가들이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집값문제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미국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저가주택 보급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미국의 평생교육원 시스템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기반이 대학교이며, 미국의 대학들은 역사적으로 19세기 초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성인교육을 꾸준히 운영해왔음.

- 또한 커리큘럼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로 취미나 여가활동 위주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직업능력, 취업기술, 은퇴자교육, 세대간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들이 많았음. 특히

미국정부는 노인들도 하나의 인력으로 인식을 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의 평생교육원의 경우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이 매우 뛰어났음(한때는 불법체류자들도 등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
- 페이스북 본사는 세계최고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캠퍼스와 비슷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시간의 출퇴근 문화가 아닌 일이 잘될 때 많이 하고, 쉴 때는 쉬는 문화가 지금의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짐. 우리나라도 사회적 시스템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반짝 떠오른 생각들을 공들여서 완제품까지 만들면 이미 다른 회사들은 한발 더 앞서있음. 페이스북 곳곳에 붙어있던, ‘Move Fast and Break Things’ 라는 문구는 우리가 되새겨 봐야함.

○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음.

- 충남도에서도 품질이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향후 한인회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미국 진출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짐.
- 아울러,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미주 한인의 날’ 같은 행사에 충남도가 참여할 수 있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미주 한인의 날’은 미국에서도 매우 큰 행사로 미국의 큰 도시들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지난 ‘미주 한인의 날’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에만 한인이 3만명이 모였는데, 그러한 행사를 이용할 경우 충남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짐.

○ 머레이 팜 농장의 경우도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보여줌.

- 블루오션 시장개척을 위한 인력의 파견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아울러 고객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 하나의 품목을 다품종으로 재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우리나라도 지역단위 농협이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영농후계자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시장성이 큰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 연수단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충청남도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평화로 하나되는 월드 밀리터리”를 주제로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공식기관 방문시 알리고, 홍보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p>페이스북 본사(2018.10.12.)</p>	<p>충청향우회 간담회(2018.10.13.)</p>
<p>머레이 패밀리 농장(2018.10.15.)</p>	<p>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2018.10.17.)</p>

## ② 향후 계획 및 보완사항

- 연수 결과, 道 집행부 관련부서 통보(11월중)
- 본회의 연수결과보고(제308회 정례회 기간중)
- 방문기관과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방문성과 극대화 필요
  - 연수 전 방문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방문 목적, 필요정보 수집 등이 필요함.
  - 전체일정을 고려한 공식기관(간담) 적정 추진이 필요하고 충분한 연수 준비기간 필요함(연수 3개월 전부터 준비)

## 미국 공무국외연수 소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제11대 충남도의회가 개원되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는 시작 전부터 많은 부담감과 설레임이 교차하였다.



210만 도민의 대표로서 참가하는 공무국외연수인 만큼 미국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서 충남도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발전상 및 공식기관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설레임이 공존했고, 연수가 시작되기 전날엔 많은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외유성 연수라는 오명을 피하고, 내실있고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연수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를 통해 계획했으며, 방문기관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러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 최종 일정조율을 통해 6개 기관과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방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연수단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페이스북 본사방문을 실시했다.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SNS 서비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모습은 대학캠퍼스 같기도 하고, 수십 개의 벤처기업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본사 마케팅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우리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곳이에요.” 라는 말이었다.



물론 주주들의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자인 마크주커버그의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지금의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또 미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은 휴일인 관계로 공식기관 방문은 어려웠으나, 우리 연수단은 기관방문 대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북가주에 거주하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1962년에 발족된 뿌리 깊은 한인커뮤니티다.

충청남도는 최근 품질이 좋은 유기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한인회 분들이 말씀하신 교포 3,4세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다.

정치인의 특성상 본인 지역구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다 보니,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고, 중앙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관계없이 교포 3,4세대에 대한 교육이나 학교설립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다.

10월 15일 월요일에는 머레이팜 농장을 방문했다. 머레이팜 농장은 유기농법으로 유명한 농장으로 미국 전역의 마켓을 비롯하

여 중국과 해외에도 많은 농산물들을 수출하는 곳이다. 머레이팜 농장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종류의 과일을 심더라도 과일의 여러 품종을 재배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딸기를 재배하면 큰 농장이든 작은 농장이든 한 두가지 품종을 선택해 소품종 대량생산을 실시하는데, 머레이 팜 농장은 다품종을 재배하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맞춰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농장 측의 인력이 시장개척을 위해 장기간 해외로 파견을 간다는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던 머레이팜 농장은 미국의 포화상태인 유기농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시장을 주목하였고, 홍보담당자인 스티븐 머레이를 중국으로 유학보내 중국을 배우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했는데, 이를 발판으로 머레이 팜 농장은 중국으로도 많은 수출을 하게 되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과감한 투자는 우리나라 농업에도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한치 앞만 내다보는 정책들과 의사결정들.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했다.

로스엔젤레스로 이동을 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제롬홀튼 국장은 국회의원을 2회 역임하였고, 세금관련 업무경험도 35년이나 된 베테랑이었다. 미국에서도 큰 주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은 엄청난 규모였으며, 이 엄청난 세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교육 투자나 저소득층 주택건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다. 특히 로스엔젤레스도 주택가격 상승으

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으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집값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서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조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시의회를 공식방문했다. 선거기간이라 시의원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의장 보좌관의 상세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미국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관통합형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행정부의 책임자가 되거나 운영책임을 지는 대의제 운영 방식이며,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고 의원당 보좌관 수가 15명 이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부러운 부분이 많았다.

주민들을 위한 의회TV 채널을 개설하여 24시간 의회관련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기당 1명의 시민이 2분발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며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 기관방문을 실시하였는데, 미국의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실태를 둘러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다고 보여졌지만, 미국의 평생교육

원을 방문하고 나니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겉보기에만 좋은 내실이 부족한 평생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불법이민자들 까지도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개방성이 뛰어났으며, 어린아이와 엄마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부터 90대 노인까지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할 만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이 아닌가 싶다. 특히 노인과 은퇴자 교육이 발달되어,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저소득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잘 활용하는 사회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입시교육과 여가와 취미활동에 치중한 평생교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클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바로 옆 소도시인 클렌데일시 중앙도서관 옆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며, 소녀상 건립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소녀상 건립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미국 내 한인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소녀상을 건립했으며, 이 소녀상을 계기로 미국 내 4개의 소녀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과거의 만행을 사과하고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소녀상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도 아픈 역사들을 알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미국 공무국외연수를 마치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이지만 미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들과 인간적인 모습들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언제나 먼저 인사를 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좀체 서두르는 법이 없었지만, 본인이 필요한 일에는 무섭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그중에서 우리 충청도가 자살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 금번 공무국외연수에서 느꼈던 점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연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안장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사위원님들과 계획단계부터 공무국외연수 기간 내내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연수후기를 마친다.

## 미국 공무국외연수 소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현



선진 미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 평생교육 시스템 등 미국의 선진 사례 비교 연수를 통해 충남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여행사가 아닌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를 통해 기관방문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총 6개 기관의 방문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직접 방문한다니 감회가 남달랐다. 페이스북 본사에 마케팅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소라씨의 첫 브리핑은 “페이스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젊은 청년이 고민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곳, 그곳은 우리나라의 위계질서가 강한 관료제 문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담당자는 아직 젊은 나이였으나 여유가 있어 보였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의 문화가 얼마나 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몸소 체험 할 수 있었으

며, 우리나라와 달리 넓은 캠퍼스 형태의 건물들, 회장의 일념 하나로 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은 대기업의 M&A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직을 하는 미국 청년들을 보며 경쟁에 내던져져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 이면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다.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충청향우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머나먼 외지에 나와 많은 어려움을 몸소 이겨내셨다는 것이 실감되는 어르신들은 머나먼 고향에서 온 우리를 반겨주셨다.

14만 한인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토론했고, 충청남도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시며 고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했다. 우리 연수단은 충남의 먹거리를 미국의 땅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며칠간의 고단한 일정을 견뎌내며 우리는 친환경 과수 생산 및 판매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머레이 패밀리 팜을 방문했다. 광활한 사막을 달려서 도착한 머레이 팜은 너무도 광대했다.

머레이 팜에서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과일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상점을 만들어 놓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머레이 팜은 하나의 농장이 아닌 하나의 큰 기업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놓았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공감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당진의 태신목장처럼 체험 위주의 농장들이 있으나, 그 규모나 운영 면에서는 차원이 달랐

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연수가 마무리되어 가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 규모에 걸맞게 40여 종류의 텍스가 있고,

2017년 조세 규모가 약 60조 달러라고 한다. 충남도의 예산이 6조 정도임을 가만할 때 그 경제규모가 얼마나 거대한 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조세형평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펼칠 때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5개의 지역(인구 950만명 기준)으로 나누어 선거로 선출한 대표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체감했다.

연수 마지막날 미국 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선거기간인 관계로 시의원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시의회 의장 보좌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경우 시장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심의·자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시민이 사전신청을 하면 2분간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2분발언 제도가 있었는데, 미국식 직접민주주의의 표출방식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각각의 의원들은 자신의 보좌 인력을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있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곳은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이었다. 시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와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거나, 미국으로 이민 온 언어가 서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공간은 활짝 개방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강의 시간을 카운트해서 평생교육원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강의실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평생교육원의 시스템이나 진행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충남 나아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과정의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이 갖춰야 할 개방성, 다양성, 전문성 등을 볼 수 있었고, 우리도 평생교육원에 적극 정책제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국외연수는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다. 다양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충청남도가 발전해야 할 방향을 벤치마킹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번 연수결과에서 습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에는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 미국 공무국외연수 소감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정관용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동행하는 집행부 직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쁜 마음과 동시에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인천에서 무려 1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매우 달라 오후 4시에 출발한 우리는 도착과 동시에 미국 오전 10시를 맞이했다. 시계를 보니 한국과 비교해 시간이 뒤로 가있었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느낌이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페이스북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하였다.

1일차 공식일정으로 페이스북 본사탐방으로 시작하였는데, 본사 마케팅부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직원(Sora elcan, 한국명 이소라)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다 보니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고, 통역이 필요 없다 보니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다.

페이스북에 가서 신선했던 사실은 해커톤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설익은 아이디어라도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본격적인 개발로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사 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페이스북만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또한 벽에는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

는 스토리 보드가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전거 거치공간을 줄이기 위해 벽에 자전거를 걸어 놓고, 회의장마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설이나 (해외의 지사와 회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음), 곳곳에 휴식공간과 다양한 음료, 다과가 준비돼 있었으며 이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좋은 업무환경과 시설을 제공하는데도 많은 직원들은 잦은 이직을 하는데, 이유는 자신의 스펙을 올려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돈 때문에 이직을 자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개인의 능력 개발이 향상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사실에 놀라웠고,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다음 견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을 방문하게 되었다. 시청 앞 잔디광장은 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었고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 우리 도청 앞에도 도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시청 앞 잔디광장에 많은 홈리스들이 누워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와 LA역시 주거지 임대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선거 이슈까지 될 정도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집값 상승과도 관련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일차는 친환경 재배농장인 머레이팜과 도시재생 사례인 캘리코 은광촌 재생 사례를 견학하는 일정이었다. 머레이 팜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들었고, 브리핑은 상당히 유익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미국정부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정하고 농장에서는 정한 만큼만 재배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많이 재배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하락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마도 미국의 광활한 토지 덕분에 미국은 농작물 생산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머레이팜 농장은 250여가지의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고 있으며 규모는 내포신도시보다 넓어보였다. 사막이다 보니 농업용수는 300킬로미터 떨어진 아리조나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물 사용료를 주정부에 내고 있었다.

머레이팜에서 2시간을 이동하여 도시재생 사례인 캘리코 은광촌을 탐방하였는데 서부개척시대를 엿볼 수 있었다. 지역에 관광지가 없다보니 나름의 역사가 있었던 버려진 은광촌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을 유치 모습을 보면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6일차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을 방문하였는데 의장이 직접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주로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미국도 도심과 외곽의 집값 차이가 심하다는 점,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해준다는 점, 시내에서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조세형평국에서는 많은 방안에 고안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투자처로 캘리포니아가 각광받고 있어서 자

본이 너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우리의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것) 또한 홈리스 해결을 위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낮은 가격으로 렌트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는데, 이는 주택 공급업자에 최대 20%의 세금혜택이 가능하며 일정부분은 저가 렌트 주택을 건설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도 도입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체 건설의 20%를 저가 주택을 지어야 세금혜택이 가능)

7일차 LA시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기중 시민들의 발언기회가 주어져 신청을 하면 1명의 시민에게 2분간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시의회 전용방송 채널이 있어서 누구나 의회의 상황을 TV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어서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과 글렌데일시 소녀상 방문을 끝으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 했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서 지난 7박 9일간의 일정을 되돌아 보면, 내가 경험한 미국을 한마디 표현하면 천조국의 위엄이라는 단어이다. 이는 요즘 생긴 신조어로 미국이 한해 국방예산으로 1천조원을 집행하기 때문이며 그만큼 미국의 국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것이다. 미국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넘치지만 그 자료의 진정한 의미는 미국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냥 사진이나 문자에 지나않음을 이번 연수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연수의 기회를 주신 이공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수 기간 동안 함께한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직원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연수 후기를 마친다.

## 미국 공무국외연수 소감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유삼형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에 함께 참여되는 기쁨을 누렸다.

연수단 일원으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귀국할 때까지 “광활함과 거대함”이라는 두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도시를 지나면 끝없이 이어지는 농장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 사막지대를 하루종일 달리다가 불쑥 솟은 산맥에 가로 막혔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속해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한반도 총면적의 2배에 가깝고, 경제 규모만으로도 세계 8위권 국가 수준에 이를 정도로 대단하다.

미국의 주(洲)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면 독립적인 국가이다. 조세제도, 행정조직, 법령체계는 주마다, 또 주에 소속된 카운티마다 또 다르다는 것을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환경이 문화(삶의 방식)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과연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충청남도를 직접 비교 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은 미국 서부로 들어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착 직후, 시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사 등 세계 최대 매출액을 자랑하는 ICT 기업들의 본거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았다.

공식방문을 하게 된 세계 최대의 사회적 관계망 회사인 페이스북(facebook)은 대학 캠퍼스의 모습과 흡사했다. 곳곳에 설치된 카페와 식당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보면 마치 놀고먹으며 근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자유분방함 속에는 자기 일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외양의 가치 보다 내부의 역량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경영의 일면을 페이스북 본사에서 볼 수 있었다.

한국인 직원 소라씨는 첫 브리핑에서 “페이스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기업지원 시스템과 청년 창업에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일자리 감소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증가하는 청년세대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면, 청년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성장이 보여주는 것은 성공이라는 가치는 수많은 실패 사례에서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악순환을 끊을 때, 청년세대는 지역을 믿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모색하고 그 결과 지역의 활력이 증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샌프란시스코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페이스북의 기업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올해 행정안전부가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점이 떠올라 충청남도도 도전하고 시도하는 도민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음 날, 1962년 결성된 샌프란시스크 한인회와의 간담회를 갖

게 되었다. 이민자의 고단한 삶의 이겨내고 현재 이민 4~5세대로 이어지는 교포 사회의 현황을 공유하게 되었다. 우리도 농산물 판매와 관광 교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이 오고간 마지막 교민 대표들은 이민 4~5세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문화로 이어지고 경제로 연결됩니다. 미국민이나 교포들과 경제 교류를 잘하려면 한국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간담회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던진 교포 어르신들의 말씀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국내에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게 아니라 외국에 소비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한류의 확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문화를 확산시키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때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점은 국제 교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 도가 수출 증진과 외국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언어 교육과 문화 교류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도착 순간부터 시작된 일정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의 일정을 계속 되었다. 광활한 사막을 달려 친환경 과수 생산 및 판매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머레이 패밀리 팜을 방문했다.

도착한 머레이 패밀리 팜은 너무도 광활했고 거대했다. 외양으로는 한국농업과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가족농장이 시스템화를 시도하는 점은 우리 농업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머레이 패밀리 팜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기업 시스

템을 갖추고 고용과 생산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먼저 유기농업 농장을 생산구역과 체험구역을 분리시켰다. 생산구역은 병충해 방제와 품질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험 공간은 누구나 접근하여 직접 경험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두 번째, 가족 간에도 업무를 구분하고 직책을 부여하여 농장 내에서 전문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스티븐 머레이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중국 유학을 다녀와接客과 영업을 담당하고 한다. 세분화된 업무는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농장 내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농작물의 품질 향상과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나 소비 부진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농업이 단일 작목 위주로 재배하여 가격폭락과 급등을 반복적으로 겪는 고질적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활하고 거대한 대륙을 달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첫 번째 방문한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이곳은 징수와 예산 배분은 물론 체납 추심과 납세자 보호도 함께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시스템이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 받으며 또 납세하는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미국식 지방자치의 한 모델이라고 하겠다.



조세형평국의 최고책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맡는 점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징수와 예산 배분을 함께하는

형태지만,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주민 위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발전되면서 갖춰야할 지방세정의 민관거버넌스(협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납세의 의무를 넘어 세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제도화 된다면 공공예산 활용의 거버넌스(협치)가 자리잡아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방정부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먼 미래의 상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날은 로스앤젤레스 시청사와 시의회를 공식방문했다. 중간선거 기간이라 시의원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의장 보좌관으로 일하는 한국계 교포를 만나 상세한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로스앤젤레스시 의회(council)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달리 집행부와 의회가 통합 운영된다. 지방의원이 우리나라 행정 체계의 국장급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을 총괄하고,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보다 책임공동체로서 일정 분야의 행정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 추천을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은 정당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시청사와 시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의 조기 이양과 자치입법권의 보장으로 주민이 자신과 지

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국가 구조의 개편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결정하는 주민참여와 거버넌스(협치)는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이다.

이어서, 사이프러스 대학(college)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구역 평생교육원을 방문하였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담당자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미국의 평생교육원의 목표는 배움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문화 사회로 저출산으로 이주민의 유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우리도 현실에서 더 집중적인 연구와 연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이프러스 평생교육원을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시 인근 글렌데일시에 제막된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 공원에 오른쪽 어깨 위에 얹은 작은 새와 함께 앉아 있는 동양의 작은 소녀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국가가, 정부가, 선출직 공직자가, 직업공무원이 잘못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 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처음 세워진 소녀상은 계속 늘어나 현재 4군데에 설치되어 있었고, 미국과 전세계에 소녀상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수단은 잠시 묵념을 하고 연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나름대로 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을 직접 보고 느낀 결과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반성을 했다. 이번 공무국외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고 기탄없는 토론을 할 기회를 주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행정자치위원회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연수후기를 마친다.